**트롤리 딜레마**

112882 김대형

112896 김효준

<http://moralmachine.mit.edu/hl/kr/results/810676329>

<http://moralmachine.mit.edu/hl/kr/results/327807337>

두 가지의 결과를 비교해 보았을 때 먼저 첫 번째로 희생자 숫자의 중요도 면에서는 평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자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에 중요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고, 팀원들의 결과 또한 매우 중요하거나 대체로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면, 1명이 희생되거나 3명이 희생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더 적은 수의 희생을 선택하는 쪽으로 판단을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승객 보호 선호도에서는 두 결과가 약간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 첫 번째 결과에서는 승객의 보호를 우선시 하는 판단을 하고, 두 번째 결과에서는 보통 정도로 판단하였다. 사용자의 안전을 우선시 하지 않는 자율주행자동차를 사람들이 많이 구매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경제적 판단으로 첫 번째의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와 같이 보통 정도로 판단을 한 것은 경제적 실용성 보다는 첫 번째 항목의 결과처럼 희생자가 사용자이든 혹은 보행자이든 더 적은 수의 희생자를 우선시 한다는 판단과 연관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보통에서부터 대체로 중요시 한다는 판단으로 거의 비슷하게 결과를 보이는데 중요시 여긴다는 판단은 교통법규를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 많은 희생자를 선택하는 것 보다 옳지 않다는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특정상황에서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경찰 혹은 도로를 통제하는 사람들의 신호를 따라 움직여야 할 때 이런 사고가 발생한다면 법규를 준수하여 상황을 판단한다는 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개입에 대한 회피 선호도 면에서는 역시 대체로 중요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비상상황 발생시 갑작스러운 진로변경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2차적 피해를 막기 위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개입에 대해서 회피를 하였을 때 더 적은 희생자를 내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 회피로 인해 2차적 사고가 발생해 앞선 판단보다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성별 선호도는 보통에 가까운 결과를 보이는데 대체로 상황을 판단할 때 성별의 우선순위를 그렇게 높게 두지 않고 앞선 항목들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 종에 대한 선호도도 사람들의 평균과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동물보다는 사람을 더 중요시 하는 판단이다.

다음 아래의 세 항목은 두 결과가 조금은 상반된 의견을 보인다. 먼저 첫 번째 결과에서 연령 선호도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유년 쪽에 조금 더 중요성을 두고 있지만 실제 테스트 수행자의 의견에서 성별 선호도와 마찬가지로 어느 쪽에도 중요성을 더 크게 두고 있지는 않다. 반대로 두 번째 결과에서는 유년 쪽에 매우 큰 중요성을 두고 있는데, 이는 사람의 도덕적인 판단이 반영되어 사람의 연령을 희생자의 수, 교통법규와 같은 것 보다 우선적으로 판단한 결과이다. 체력선호도 역시 첫 번째 결과는 성별, 연령과 같이 크게 중요성을 두고 있지 않지만, 두 번째 결과에서는 건강한 사람을 더욱 보호하는 쪽으로 결과를 보인다. 비슷한 상황에서 건강한 사람을 우선시 하는 것이 그렇지 않을 경우에 비해 사회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가치관 선호도 항목에 대해서는 두 결과가 완전히 반대의 의견을 보이고 있다. 두 번째 결과와 같이 통상적으로 사람들은 같은 상황에서 범죄자와 같이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을 희생시키는 쪽이 낫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사람의 사회적 가치관까지 완벽히 판단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진 수행자는 첫 번째 결과와 같이 사회적 가치관 항목에 대해 아예 중요치 않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면 방금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중인 범죄자와 같은 경우 인공지능이 혹은 운전중인 사람 또한 이를 올바르게 판단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자율 주행 자동차가 실용화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 마다 판단이 크게 다른 항목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적용할 것인가가 핵심적인 요소이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만족 할만한 결과를 내는 자율 주행 자동차는 만들어 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